

◆교회목표◆

천국일꾼을 키우자
지역사회에 봉사하자
우리 세대에 민족복음화를 이룩하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1:14)

발행처: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신성중 편집인:오태희 편집국장:조선근

교회설립 40주년 맞는 충현교회

충현교회는 1949년 9월 6일 창설된 이래 40년이 되는 날이다. 회개와 성령의 충만한 사랑으로 세워진 이 교회는 창설 초기부터 지역사회의 복음화와 사회봉사를 위하여 헌신해 오고 있다. 창설 초기에는 10여 명의 성도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1,000여 명의 성도들이 헌신하고 있다. 창설 초기에는 10여 명의 성도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1,000여 명의 성도들이 헌신하고 있다. 창설 초기에는 10여 명의 성도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1,000여 명의 성도들이 헌신하고 있다.



□ 교회설립 40주년 기념사 □

충현40주년의 의미와 우리의 지향

신 성 중

〈목사, 당회장〉

인간이 동물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시간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한다는 점입니다. 시간에는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간은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인간의 역사가 측정되고 흘러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또 다른 시간이 있습니다. 두번째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기회'를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시기를 알아야 하는데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란 말에서 '시기'란 말은 바로 이 카이로스를 말합니다. 즉 영적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이들은 말하기를 만약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면 왜 삼년씩이나 기다렸는가하고 묻습니다. 그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때가,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지만 아무 때나 죽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이처럼 인간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충현교회가 설립된지 40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현 40년이란 때의 의미는 무엇이며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는 것일까요?

1. 충현 40주년의 의미

하나님의 시간은 크게 나누면 첫째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때와 둘째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오스카 클만아 말한 소위 중간 시간(Mid-Point)과 셋째로 앞으로 있게 될 주님 재림의 때의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부활과 재림의 중간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특징을 본문에서는 "자다가 깰 때"라고 바울 사도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충현의 의미는 '자다가 깰 때'란 말입니다. 자다가 깬다는 말은 여러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1) 옷을 입을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윤리적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말합니다. 지금 전국 교회는 충현교회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보고 있습니다. 좋은 점에서는 나쁜 점에서는 다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옷을 입어야 합니다.

(2) 자다가 깰 때란 말은 일할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새벽이란 일할 시간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제 역사의 새벽을 맞는 충현은 일을 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뿐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일을 해야 합니다.

(3)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본래 40이란 말의 뜻은 시험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생활을 하였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기도하였고, 이스라엘의 12 정탐꾼들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고, 예수님이 40일간 금식기도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40이란 뜻은 시험숫자입니다. 그동안 우리 충현도 40년을 채우기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큰 시험을 치루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우리는 몇가지를 꼭 해야 합니다.

2. 40주년을 맞는 충현이 해야할 일

(1) '벗고 입을 일'을 해야합니다.

먼저 옛날 어렸을 때에 지은 옷을 벗어야 합니다. 때문에 더러운 죄악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땀나는 헌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 작고 때묻은 옷으로는 가나안 땅을 건너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벗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에는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입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옷은 아무리 새옷이라해도 곧 더러워



충현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충현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충현교회를 더 훌륭하게 성장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일체가 되어서 기도로써 나아가면, 우리 충현교회는 주님 오실 날까지 이 땅위에서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든 등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고, 유행이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2) '충현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좀더 부흥되고, 성숙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한국의 역사를 보면 1907년에 평양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43년이 되던 해에 한국이 잠들었을 때에 6.25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6.25가 일어난지 4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것은 이제 신한국 창조와 함께 한국교회가 새롭게 거듭나고 부흥의 불길을 일으킬 때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3) '육체의 일은 도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육체의 일을 너무 많이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문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치에서는 이제 권위주의가 물러가고 자유 민주주의가 정착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단 안에서는 아직도 교권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고, 권력과 물질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충현교회는 지난 40년간 실수한 것도 있었지만 원로 김창인 목사님을 통해서 이룩된 전통은 교권주의를 배격하고, 세속주의도 배격하고, 오직 신본주의 신앙 하나만을 보수하여 왔고, 또 앞으로도 이 전통은 계속될 것입니다.

충현(忠峴)이란 글자의 뜻은 곧고다 언덕까지 충성한다는 뜻입니다. 이름 그대로 계속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3. 40주년을 맞는 충현의 비전

(1) 충현교회는 섬기는 교회로

무엇보다도 충현교회는 장자 교단인 합동측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로서 '자세하는 교회가 아니라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것은 물론 '바른 목회의 모델제시'와 '복음주의적 교회로서의 모습'을 지녀야 합니다.

(2) 충현교회는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교회로

지역사회와 국가 안에서 집단적 이기주의를 버리고, 봉사하는 교회'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도 '유익을 주며, 인정을 받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지녀야 합니다.

(3) 충현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충현교회는 '민족복음화의 선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동남아에 복음을 수출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4) 충현교회는 북한 선교에 힘쓰는 교회로

원로 김창인 목사님이 시작한 '북한 선교의 사명'을 다시 계승'하고 감당하여 좀더 구체적인 선교전략을 세워, 다른 교회들과 밀접한 유대관계를 이룩해서 이것을 2천년 안에 이룩하도록 해야 합니다.

(5) 충현교회는 모이

고 흠어지는 균형있는 교회로

호흡은 들며마시고 내뿜는 두 가지의 면이 있듯이 '충현교회는 모이고 흠어지는 균형'을 갖추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성령충만함 받는 '모이는 교회'의 면모 뿐만 아니라 주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며 소금과 빛이 되는 '흠어지는 교회'로서의 면모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6) 충현교회는 기독교 문화를 창달하는 교회로

충현교회는 '사회에 적극 참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할뿐 아니라 기독교 문화의 창달에도 일익을 담당'해야 합니다.

저는 이 다섯 가지의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당회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충현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충현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충현교회를 더 훌륭하게 성장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일체가 되어서 기도로써 나아가면, 우리 충현교회는 주님 오실 날까지 이 땅위에서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든 등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충현 40년의 발자취

· 1953. 9. 6 첫예배 드림으로 교회 설립
서울 인현동에서 남성도 3명, 여성도 5명과 남학생 8명, 여학생 2명이 모여 첫 예배를 드림

· 1953. 10. 26 예배 장소 옮김
서울시 중구 충무로 5가 36에 310평의 대지를 매입하여 이사함 이곳은 조선 극장과 대원각이란 요리집이 있었는데 6. 25 전쟁으로 모두 불타버리고 세채의 조그마한 집만이 남아 있었음 이곳에서 예배드림

· 1954. 5. 9 당회 조직
4월 25일 장로 투표하여 강지순, 최재성, 우성원이 피택, 5월 9일에 취임 및 장립식을 함

· 1954. 10. 성전건축 기공예배

· 1956. 8. 12 교회명을 통일교회에서 충현교회로 개칭

교회명이 이단종파인 통일교회와 발음이 비슷하고 또한 통일교회가 부산의 동대신동 일가를 탄 것이기에, 제직회에서 공모하고 투표하여 예배당 위치가 야현동이었던가 충무로로 된 것에 착안하여 충무로의 「충」자와 야현동의 「현」자를 골라 「충현」으로 정함. 충성된(忠) 고개(峯)위에 세워진 이 시대의 등대로 풀이해도 좋은 뜻임

· 1958. 9. 30 성전건축 헌당식 및 김창인 목사 위임식

4년에 걸친 건축 끝에 헌당식과 김창인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여 위임식을 가짐

· 1963. 9. 19 교회설립 10주년
교회설립 10주년을 맞으며 교회는 '천국일꾼을 키우자'를 표어로 내걸고 교육에 치중함

· 1968. 9 교회설립 15주년
교회설립 15주년을 맞으며 교회는 11월 21일 해외복음선교회를 구성하고 해외선교에 대해 역점을 두기 시작함

· 1970. 11. 15 교회 신축대지로 강남구 논현동에 대지 9,000평 매입
머지않아 교회당이 비좁을 것을 예상하고 그 당시 황무지와 같은 강남(현재의 곳)에 대지 구입

· 1971. 9. 9 해외선교회 창립

해외선교회 창립총회후 해외선교에 대한 검토를 하고 해외선교사 1호로 서만수 목사 부를 결정하고 인도네시아로 파송. 충현선교의 문을 활짝 열음

· 1973. 9. 30 교회설립 20주년

교회설립 20주년을 맞으며 교회는 전 교인을 성경으로 교육시키기 위하여 상설 성경연구원을 설립. 성경강해 중심의 전 교인 교육을 실시, 주일뿐만 아니라 주간 중 낮시간과 저녁시간에 상설로 운영

· 1977. 4. 1 김창인 목사 북한선교회 설립하고 초대 이사장에 취임
그 당시는 마치 미친 사람들과의 이야기와도 같던 북한선교를 주창하며 북한선교회를 조직. 김창인목사가 초대 이사장에 취임

· 1978. 9. 3 교회설립 25주년
교회는 강남의 새 성전 공사를 결정하고 이미 1978년 5월 25일 새성전 기공예배를 드림

총력을 성전 건축에 두고 온 교회가 힘을 합함. 또한 1978년 6월 1일에는 경기도 광주군에 충현기도원을 건립 헌당예배를 드림

· 1984. 4 새 성전의 일부(교육관, 선교관)를 완성하고 충무로에서 역삼동으로 이전, 입당예배

로 이전, 입당예배

기다리던 이사였지만 본당을 완성하지 못하고 공사중인 상태에서 본당 지하를 정리하고 그곳에서 예배드림

· 1987. 7. 12 본당 입당예배
기다리던 본당 입당. 아직 완공은 안되었지만 본당 내부를 완공하고 입당

· 1987. 12. 28 김창인 목사 원로목사 추대
1987년 7월 16일에는 교회설립부터 함께 해 온 김창인 목사 성역 50주년 기념감사예배가 드려졌다. 이해 연말에 원로목사로 추대됐다.

· 1989. 1. 29 주일 III부 예배시 영어, 일본어, 중국어, 수화 동시통역 실시
본당에 동시통역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준비되어 있고, 매주일마다 외국인들이 찾아옴에 따라 주일 III부 예배에서는 외국인들을 위한 동시통역과 농아인을 위한 수화통역을 실시.

· 1991. 12. 2 신성종 목사 위임 감사예배(수도노회)

· 1993. 3. 10 충현봉사관 헌당
교회설립 40주년을 맞는 1993년에는 '지역사회에 봉사하자'를 교회목표로 추구하고 대 사회 봉사에 관심과 힘을 기울일 것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미리부터 준비해온 교회는 2년여의 공사끝에 봉사관을 완공했다.



드림





◆ 특별대담 : 김창인 원로목사 ◆

설립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 모든 행동과 결정의 동기

교회는 오늘(9월 첫째 주일)로 설립 40주년을 맞는다.

40년이란 세월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겠지만 현재 우리 교회의 위치와 상황으로 볼 때, 또한 앞으로 21세기를 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의 역할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교회설립에서부터 오늘날까지 늘 교회의 선두에서 교회를 섬기며

일관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해온 김창인 원로목사를

바쁜 일정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만나보았다. (편집자 주)

□ 일 시 : 1993. 8. 31 오전 11시

□ 장 소 : 원로목사실

□ 대 담 : 조 선 근(장로, 출판국장)

▷ 목사님, 다음 주일이 충청교회 설립 40주년이 됩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40세가 되는 셈입니다. 교회적으로 중요하고 뜻깊은 40주년을 맞아서 원로목사님의 이야기를 <주간충헌>의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의 충청교회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은 말할 수 없으시겠지만 40년을 이끌어오신 목사님의 감회야말로 더 한층 크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허허 감회라..... 감사한 것 한가지지요. 다른 것보다 감사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오로지 감사한 것뿐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주신 것뿐이지요. 감사한 것뿐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20년사>, <교회 25년사>를 만들며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청취했다. 김창인 원로목사도 여러번 만나고 관계되는 기록들도 검토했지만 김창인 원로목사의 설교중 가끔 튀어나오는 또다른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직도 있기는 하다. 혹시 그런 면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얻을 수 있을까 해서 다음 질문을 해본다.

▷ 교회설립 당시의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충헌20년사>나 <충헌25년사>의 기록을 통해서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해서 서울수복과 함께 부산 동일교회 교인들을 중심으로 목사님과 함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수록된 것들이 다 정확하죠? 혹시 그 다음에 그 기록 외에 목사님께서 아직까지 얘기하지 않은 부분이 있든가, 숨은 이야기든가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좀 털어놓아 주셨으면 합니다.

▶ 글쎄 정확하다는 말을 내가 못하는 것에 앞버렸으니까. 정확한지 안확한지는 단정해서 말하기가 힘들어. 그때에 기록하신 분들이 자제해 살피서 정확하게 기록했다고 믿지요.

▷ 설립 당시 공헌한 교인들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교회설립에 동참해서 애썼던 한분 한분에 생애를 펴내시니까 우리가 선배 신앙인들의 얘기를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립 당시 주님과 동행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선배신앙인들의 얘기를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 함께 시작했던 사람 중에 지금 살아 계신 이학주 권사님, 내가 약속도 안했는데 내가 상장할 줄을 믿고 경계장에 늘 나와 계신 것 같습니다. '김 전도사가 외야 교회'가

되겠는데 그때 내가 전도사때니까. '김 전도사가 외야 교회'가 되겠는데 하면서 서울역에 나와서 기다리고 안오면 또 나오고 하면서 마음을 썼지요. 그처럼 교회를 세우기 위해 애썼지요. 잊혀지지 않는 일입니다.

6.25 전쟁으로 서울 사람들이 부산으로 피난을 가서 생활하며 그곳의 교회에, 또 새롭게 교회를 세우며 피난 생활중에 신앙을 지켜나갔다. 부산으로 내려간 김창인 전도사도 부산에 동일교회를 세웠다. 전쟁이 끝나가면서 서울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서울에도 동일교회를 세우기로 했다. 그러나 부산에서는 서울로 올라가는 것을 막았고 서울에서는 빨리 올라오기를 독촉하는 일이 생겨 김 전도사는 2개월은 부산에서 1개월은 서울에서 목회를 하기로 했다. 그래서 서울에서 설립예배를 드린후에도 이런 상황은 계속됐고, 김 전도사가 서울로 완전히 오게 된 것은 53년 12월 13일이었다. 처음 설립예배를 드렸던 열여덟명 중 이미 고인이 된 사람이 많이 있고 또한 외국에 체류하기도 하고 현재 우리 교회에 남아 있는 사람은 김창인 원로목사와 이학주 권사, 제수익 권사, 오진국 장로(당시 학생), 안중옥 집사(당시 학생)가 있다.

▷ 설립 당시의 목회이념을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 충청교회 하면 김창인 원로목사님을 생각하게 되고 김 목사님 하면 충청교회를 생각할 정도로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오신 목사님의 목회이념이 무엇인지 저는 제가 잘 정리가 안되어서 목사님이 아주 좋아하시고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시며 말씀하시는 시편 18편 1절의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말씀, 그 말씀은 목사님의 첫번째 설교집의 제목을 선정할 때도 설교제목 세 가지를 내걸 때 드렸을 때 제일 마음에 드는 것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가 마음에 든다고 말씀하시며 제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를 첫번째 설교집 제목으로 정했었지요. 그래서 목사님의 목회이념에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볼 때 '하나님 영광 중심의 선본주의'라고 생각했고 그에 대한 실천방안으로 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북한선교, 세계선교라고 행장을 했습니다. 또 저에게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성수주일, 삼일교 생활, 경건한 예배 분위기에 조성 등이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아야 할 교회로서는 사어교회를 품으시며 늘 순교정신을 말씀하셨고, 벨라몬과이교회를 예로 드실 때는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으로 제 나름대로 정리했습니다.

▶ 정리를 잘 했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려면 난 무슨 일든지 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지요. 그런 것을 목회철학이나 뭐니 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가 내가 지금까지 일해온 것들의 행동기준이었지요. 그러나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을 뿐입니다.

▷ 목회과정에서 어려웠던, 물론 초창기뿐만 아니라 목회를 꼭 해오시면서 목사님은 특별히 몸이 약하신 분이로서 큰 목회를 하시고 대외활동을 하실 때에 어려웠던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초창기에는 충무로 5가에 교회당 건축 또 이어서 역삼동에도 새성전을 건축하시는 등 많이 있는데 그동안 목회과정 중에서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 어려웠던 점이 꼭 한가지가 있었지. 그런데 그것이 내가 기도 많이 못하고 내가 부족해서 그랬고 그후에는 어려운 일이 없었고, 몸이 약해진 적이 있는데 그때도 어려움이라고 느껴지는 못했지요. 남들은 충무로 5가에서 교회 지을 때 수복해서 돌아왔다고 하지만 사실상 어려운 가운데서 그만한 예배당을 짓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느냐, 또한 역삼동 교회당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느냐고 하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내가 어려웠든가 고생했다는 생각은 없고, 예수님이 고생하신 것과 순교하신 것을 생각하면 너무 편안했지. 고생한 것은 도무지 생각을 못하겠어.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 말도 안했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이제 예수님이 고생하신 것, 앞서간 선배들이 순교하신 것, 고생하신 것에 비하면 너무도 편안한 것이지.

▷ 그밖에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기에 별 문제는 없었지만 목사님께서 부흥사로서도 많이 활동을 하셨고, 총회장 해하실 때 목사님께서 결단을 내리시고 해결해야 될 특별한 일이 있으셨는데요. 예를 들면 5.16후 화폐개혁 때에도 주일에 환전을 안하고 모두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 그때도 으레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자고 하나까 교회가 말을 듣고 그렇게 했지.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야 어려운 것이지. 임시환전인데 어려운 것이 없었어. 우리가 출발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에 일하셨고 나는 그저 거기만 했지. 하나까 하나님에 질을 맡겨 주신 것뿐이야. 나는 평생에 늘 힘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있다면 북한선교를 하면서 좀 골치가 아팠지. 그외에는 별 문제가 없었어.

▷ 목사님 말씀 나오신 김여요, 북한선교에 관해서 이야

기를 해보지요. 목사님이야 처음에는 교단내에서 그 일을 추진시키고 하시고 싶었지만 그것이 결국은 뜻대로 잘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범교단적으로 이렇게 통합측이라든지 그밖의 다른 교단을 참여시켜서 이사회를 구성하시고 목사님이 북한선교회를 끌고 나가셨지 않으셨습니까?

▶ 그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전부 연합해서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

▷ 목사님은 그런 좋은 정신에서 시작하셨지만 혹시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으신 일은 없으신지요?

▶ 누가 비난했는지는 모르지요. 한가지는 지금도 그 일을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 다 간섭을 해야 하는데 다 간섭을 할 수가 없고 정성이 모자라고 또 잘되는 줄 믿고 일일이 간섭을 못했으니가 실수하는 사람도 있었겠고 그러다보니 문제가 생기고 했는데, 결국 내가 책임자니까 내가 책임을 다 져야지.

▷ 목사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 안팎에서 많은 활동을 해오시면서 고생도 많으시고 아픔도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보람있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람있었다고 생각한 것은 경목사업을 시작해서 종로경찰서에서 경목취임식을 시킬 때를 잊지 못하지. 종로경찰서라고 하면 우리나라 애국자들을 다 잡아 죽인 곳인데 그곳에서 경목취임식을 할 때 감격했어. 너무 좋았어. 그래서 내가 목회하는 가운데 본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증거하는 것도 즐겁고, 하나하나 모든 것이 기뻐지만, 경목사업한 것이 너무너무 기뻐고 종로경찰서에서 경목취임식때 감격했지.

▷ 목사님이 초대회장이 되시고 지금까지도 경목사업은 잘 진행되지요?

▶ 내가 3년 계속해서 회장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잘 되니까 잘 되는 것을 볼 필요가 없거든.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지금도 잘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이제 북한선교도 잘 되면 딱 다 넘길려고 했는데 그만 그동안에 바빠서 구체적으로 함께 못했더니 그만.....

김 목사님은 원래 시대를 앞질러보는 해안을 가지고 있다. 경목사업이 그렇고, 그 당시 모두가 미친 사람을 취급하던 북한선교가 그렇고, 역삼동 교회당 건축이 그랬다. 경목사업을 가장 기억에 남고 보람있는 일로 여기는 것은 참으로 예외였다. 그외에도 더 중요하고 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목사님 자신이 일제하에 신사참배를 꾀하여 다니고 고난을 당하셨던 일 때문일 것이다. 종로경찰서는 한국인들에게 일본 압제의 상징이었기에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북한선교는 계속적으로 여운으로 남아 있고 아마도 현 우리나라의 상황, 기독교계의 입장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서둘러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기다려야 하는 목사님의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았다. 북한선교에서의 기다림은 결국 목사님이 자신을 또 돌아보게 하며 다시 한번 준비시키는 기회가 된 듯도 하다.

▷ 북한선교가 앞으로 잘 되겠지요.

▶ 잘 돼야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교인들도 바로 배우고 싶고 전도도 힘있게 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겠다는 생각이,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지나쳐서 실수한 적이 있는 것 같아. 그럴때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실수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하지.

▷ 우리 교회에서 함께 일하신 부목사님들도 목사님 밑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하고 어디 가서든지 성공적으로 목회사역을 감당하시고 계신데, 목사님께서 부목사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시는지요?

▶ 교역자들은 몇 가지 말을 듣기 쉬운데 돈 문제 때문에 말을 듣기 쉽다. 돈 문제 때문에 평소에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니까. 예제는 잘들하고



한 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일은 생명을 바쳐서 하고, 하나님께 욕되는 일은 모두 철두철미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돼. 그런 의미에서는 본 교회를 키우는 일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국내 외적으로 할 책임이 더 많은 것 같아. 내 교회만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 한국의 안 믿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할일을 해야지.

내가 처음부터 원하는 것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었어. 나는 지금까지도 대학생 한 사람의 등록금을 계속해서 주고 있어요.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그 이상 더 귀한 것은 없어.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서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있는 것 같아. 둘째 문제는 남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심방을 가더라도 그 집에 나이드신 원사님과 딸이 사신다하면 원사님은 나이 높으신 분이니까 만나지만 나 혼자 갈 때 원사님이 안계시고 딸이나 자부만 있다면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지. 꿈에도 말 한마디 들으면 큰일이거든. 이렇게 남녀관계에 있어서는 철저해야 돼. 어떤 때는 너무 지나치게 해서 그들을 섭섭하게 한 적도 있지. 그러나 내 마음이 나빠서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닌데 미안하지. 어떤분은 참 좋은 분인데 지나보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엄격했다. 그래서 그분이 섭섭했겠다 그럴 때도 더러는 건 적이 있어. 그런 면을 강조하고 있지.

▷ 우리 교회가 큰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든 대형 교회가 된 만큼 우리 교회가 할 의무와 사명이 큰 것은 사실이거든요. 비전도 커야 되고 할 일도 규모가 커야 되는데 미래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한 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일은 생명을 바쳐서 하고, 하나님께 욕되는 일은 모두 철두철미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돼. 그런 의미에서는 본 교회를 키우는 일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국내 외적으로 할 책임이 더 많은 것 같아. 내 교회만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 한국의 안 믿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할일을 해야지. 너무 지나치게 내교회 내교회 하다가는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일해야 될 기회도 못치게 되겠지. 이제는 예배당도 다 지었고 앞으로 좋은 사업 많이 하려고 봉사관도 지었으니, 선한 사업도 많이 하고 구제 사업도 많이 해야지. 내가 처음부터 원하는 것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었어. 나는 지금까지도 대학생 한 사람의 등록금을 계속해서 주고 있어요.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그 이상 더 귀한 것은 없어.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서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 목사님께서 교육문제를 많이 생각하셔서 설립초에도 교회교육을 먼저 시작하셨거든요. 교육의 발전은 곧 전도 활동으로 이어진 것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 생명을 키우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데. 생명중에 사람의 생명이 제일 귀해. 육신의 생명보다 영혼의 생명이 더욱 귀하기에 영혼의 생명을 키우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돼. 사람 키워 놓으면 모든 것이 바로 서고 사람을 바로 키워 놓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잘못 서니까. 사람 키워 놓는 것을 우리 교회가 지금도 많이 하지만 좀더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뭐든지 해야 한다는 김창원 원로목사. 그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 과정에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앞서가다 비난도 듣기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그의 삶과 자세가 분명했기에 후회가 없다. 21세기를 앞두고 우리 교회의 상(象)에 대해 물어도 '하나님의 영광되는 일이라면'으로 답했다. 우리로서는 너무 들어서 익숙한 듯한 표현이지만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그에게는 확신과 용기가 배어나오는 말이었다. 진정 그렇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라면' 이 한가지로 족하다. 별난 용어로 치장하여 잘난 척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그런 면에서 그가 말하는 '천국 일꾼 양성'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40년이란 세월은 한 세대가 지나고 새로운 세대가 오는 기간으로서의 뜻이 있다. 이제 새로운 세대가 열리고 있다. 그가 살아오며 가르치고 본 보여준 40년의 세월은 새로운 세대들의 삶 속에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 영광돌리며 살고자 하는 마음을 깊이 있게 새겨놓고 있는 것이다.

정리·사진/이 형 수(집사, 주간총현 편집장)

충현40년의 의미



교회설립 팔순 돌잔치를 맞이할 것을 목표 삼고

조 현 명
(원로장로)

저는 1951년 1월 14일 6.25전쟁 후퇴시 정부를 따라 부산으로 내려가서 대신동에 동일교회를 세우기 전 서부교회에서부터 김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

다. 김창인 목사님의 설교는 때로는 맑게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되었고, 죄의 정체를 밝혀 심령을 찢어 병든 영혼을 치료하고 구원의 능력이 되기도 하였고, 때로는 굳건한 반석이 되어서 불의의 세력에 굽히지 않고 부조리를 척결하여 이 나라 민주주의의 정신적 기초가 되기도 했고, 때로는 하늘을 향하는 절규가 되어서 국난과 절망에 처한 겨레의 영혼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김창인 목사님께서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평양에 가서 부흥회를 하고 금강산에 기도원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온 겨레의 소원이니 북녘 땅에서 성대한 부흥집회가 베풀어지게 되기를 비는 마음 간절합니다.

40년전에 우리 교회가 설립되어 오늘 이만큼 발전된 것은 김창인 목사님의 공이 지

대하다는 것과 역대 교역자님의 노력으로 발전된 것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또 40주년을 지나 80주년, 교회설립 팔순 돌잔치를 맞이할 것을 목표 삼고 부흥발전되는 충현교회가 될 것을 축원하는 바입니다.

인생에 있어 청년의 때는 봄이요 아침의 해라고 이야기하며, 장년은 여름이요 한낮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노년은 가을이요 황혼의 노을의 아름다운 모습을 비취주는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력이 최고에 달했을 때는 10~23세까지고, 상상력이 최고에 달했을 때는 20~30세까지이며, 창조력이 최고에 달했을 때는 30~55세까지이며, 인간의 판단력이 최고에 달했을 때는 45~70세 까지라는 것입니다. 40~70세가 가장 최고의 기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최고의 기능을 갖고 있는 우리 3만의 성도가 겸손의 정신, 향상의 정신, 활동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복음으로 조국의 평화통일이 이룩되고 '40'광야의 유랑(流浪)은 다시 없으리라고 믿읍시다.



충현교회의 어제 · 오늘 · 내일

정 하 우
(장로, 19교구 교구장)

40주년을 맞으면서 새로운 각오와 비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충현교회의 역사를 살펴보고 미래를 향한 방향과 과제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의미있다고 본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김창인 목사님과 함께 18명이 1953년에 교회를 설립하여 예배, 교육 및 전도에 주력하면서 5주년에 충무로에 구성전 건축을 이루었다. 10주년에 이르러서는 교회의 근간을 시편 18편에 두고, 교회목표에 천국일꾼 양성을 설정하였다. 15주년에는 해외복음선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선교사의 파송이 시작되었고, 20주년에는 전교인의 말씀 교육을 위해 성경연구원을 설립 운영하면서 영성훈련을 시작하였다. 25주년에는 북한선교사업을 추진하면서 민족복음화와 통일대비책을 강구하였으며, 30주년에는 강남의 새성전으로 이전하여 세계적인 교회로 발돋움하는 기틀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35주년을 맞이하면서 김창인 원로목사님의 추대와 함께 2세대의 목회자가 시작되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에 역점을 두면서 국제화의 역할에 관심을 가지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는 오로지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예정된 은혜의 역사였고 미래 지향적이었다.

40주년을 맞은 우리는 새로운 각오와 재도약의 기초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고려해야 할 내용을 몇가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교회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목적지표의 설정과 추진의 계획과 방법을 구체화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운영자와 참여자가 다 함께 지상명령의 수행과 은혜로운 열매를 위해 기도하고 즐거움에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복음사역을 위해서는 여러 기관들의 연합체에 의해 운영되므로 은혜로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동체의 조직을 체계화해야 한다. 이러한 상호협력력을 통해 성도의 성숙된 신앙생활을 도모하면서 교회는 더 강력한 추진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새성전 시대에도 변질하지 않고, 성수주일, 경건예배, 십일조, 밥알 한톨 안 버리는 애국정신 등 복음주의적이고 애국적인 충현 기독교문화를 재정립해야 한다. 이런 것은 우리와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생활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시켜 주고, 십자가의 즐거움에 동참케 해줄 것이다.

아름다운 전통과 신앙을 본받아

이 병 학

(장로, 찬양위원회위원장, 10교구 교구장)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 직전에서 유엔군의 도움을 받아 서울에 돌아와 충무로 5가에 교회를 세운 것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었다.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김창인 목사님을 선두로 해서 온교회가 복음전도에 힘을 써온 것이 50년대

라고 하면, 60년대는 천국일꾼양성, 70년대는 세계선교, 80년대는 세 성전건축에 역점을 두고 달려오는 동안 많은 시련도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와 성도들의 거도와 헌신을 통해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큰 사명감을 느끼게 한다.

교회설립 40주년을 맞으면서 과거 충현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일은 다 물러가고 새 세대가 주역을 담당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아름다운 전통과 신앙을 본받아 믿음의 선배들이 이루어 놓은 터 위에서 민족복음화와 교회와 민족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참 지도자적인 역할을 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리고 교회부흥을 저해하는 요소를 과감하게 개혁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계속하여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한 세대를 보내고 새 세대의 문턱에

강 협

(장로, 18교구 교구장)

출애굽전 지도자로서의 훈련이 필요했던 모세의 '40년'이 있습니다(행 7:23-30).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 전 선민으로서의 훈련에 필요했던 '40년'이 있습니다(신 8:2). 하나님

의 크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충현교회가 지나온 '40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민족의 제사장 교회로 훈련 받게 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눈물의 회개와 피나는 봉사, 겸손과 충성으로 쌓아온 복음주의 신앙의 터 위에서 민족의 회개와 국토통일, 북한 선교와 민족 복음화, 교회 부흥과 세계 선교의 열매를 거둘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분명히 한 세대를 보내고 새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커지면 책임은 더욱 무거워진다는 것을 알기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와 올수록 기도와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총이 충현교회를 통한 역사 가운데 거룩하게 드러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녀를 둔 부모들은 사춘기에 대하여 염려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때를 잘 넘길 수 있을까 하며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보게 된다. 이 시기를 잘 극복한다면 청년기를 준비함에 있어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앞서 사춘기를 떠올리게 하는 것은 이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사춘기(思春期)로 일컬어지는 40대의 의미를 말하고자 함이다.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저야할 시기이며, 열매가 있어야할 시기이기 때문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가정, 자녀, 직장, 사업, 대인관계, 건강 등의 문제로 남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는다. 책임이 무겁고 부담스러워 불안하며, 위협과 위기에 겁을 먹는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느덧 바람에 쏠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며 벗어날 수 없는 몸부림을,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한다. 이때를 잘 극복하면 노년의 보다 나은 삶에 어느 정도 보장을 받게 되겠지만, 실형 이러한 문제들을 잘 극복한다 해도 언제 닥칠지도 모르는 죽음 앞에는 역시 아무 도움이 안된다.

그렇다면 확실한 장래를 보장받기 위한 절대적인 가치가 있을까?

여호수아 14장 7-9절에서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레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내 나이 40에 (1953~1993)

최 성 현

(장로, 교동부 부장, 9교구 교구장)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내 백성의 간담을 녹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네 발로 밟은 땅은 영영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온전히'라는 단어에 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온전하다'를 국어사전에서는 '본 바탕 그대로, 완전함'으로 기술하고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춘기(思春期)를 '온전함'으로 변화시킬수는 없을까? 1953년 9월 18명으로 시작한 충현교회는 어떤 모습, 어떤 생각으로 지난 40년을 기억하고 있는가? 또한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많은 시간에서 과연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화해, 이웃과의 화해, 자신과 가족과의 화해를 통해 하나님됨을 이루어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40년을 맞이한, 그리고 새 세대를 맞이해야 할 우리교회가 저야할 사회적 책임이며 또한 열매로 나타내야 할 부분이다.

여호수아가 받은 복! 충현교회가 밟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가 맺히고, 우리의 재손들에게 영원한 찬양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 생명력이 있는 우리 충현교회! 내 나이 40세에 꿈을 갖는다!



새 생활 새출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윤 용 규

〈목사, 예배위원회 지도, 12교구 담당〉

누가 현대를 가리켜서 의미를 상실한 시대라 하였던가. 한국교회가 선교100주년을 자축한 후 시대적 의미를 깨닫고 이제는 선교 21세기를 향해 힘찬 도전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 때에 우리 충현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하여 여기까지 성장케 해주심을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책임에 충실하려고 힘쓰고 있다. 그러나 오늘에 만족하고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된다.

출애굽의 역사가 아무리 귀하다고 할지라도 광야에 머문 것으로 끝나고 말았다면 출애굽의 의미는 상실되고 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충현교회는 이제부터는 광야교회 40년의 과정을 다 마치고 가나안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하고, 오늘의 40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도약하는 새 역사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충

현 40년의 의미속에 담겨 있는 우리의 힘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모두 새 출발의 대열에 서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의식적 변화, 창의적 변화, 적극적 변화, 선택적 변화, 자발적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

교회의 부흥은 교회의 교회된 본질에 있다. 어떤 교회가냐 중요하다. 무엇이 목적이냐 중요하다. 미래지향적 목적설정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다. 우리 모두 충현 40년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재확인하고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서 새 생활, 새 출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소중했던 모습을 찾아서 미래의 원동력으로

이 홍 성

〈목사, 5교구 담당〉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사색적(철학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전 것을 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우리는 '충현 40년의 의미'를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보아야 한다. 우리 속에 있는 소중했던 모습을 찾아서 희망이 있는 미래를 창조하는 원동력을 삼자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남이 없는 귀한 것을 가지고 있었다. 순교적 신앙과 희생적 신앙과 비전의 신앙이 그것이다. 일체의 꾀박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주기철, 길선주, 이기선 목사의 대를 잇는 감동인 목사님의 순교

적 신앙이 그것이고, 새성전시대를 향해 온 교회가 병어리 저금통을 나누어 갖고, 영아부에 이르기까지 온 교인이 참여하는 3년 이내의 저금통장은 매일 매일 기도와 헌금으로 나타나는 희생의 현장이었다. 뿐만 아니라 불과 40년의 짧은 역사속에서도 급변하는 서울의 미래를 바라보며 새성전 시대를 준비하는 비전의 신앙은 오늘의 우리를 한국교회의 지도자적 교회로 성장하게 하였다.

생각이 없는 사람은 인간이 되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과거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창조적 미래를 만들 수 없다. 충현의 성도들이여 우리들의 보배를 미래를 향한 시금석으로 다시 한번 다듬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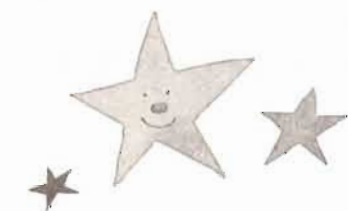
충현경로대학 개강

2학기 학생모집, 접수중

충현경로대학(학감 김경칠 장로)은 9월 16일 2학기 개강을 앞두고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다. 충현경로대학은 60세 이상이면 들어갈 수 있는데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모인다. 매주 목요일마다 2교시의 강의 및 특별시간이 있고 후에는 각 특별부서별로 특별활동하는 시간을 갖는다.

2학기에는 신앙인의 국가관, 소망의 천국, 노년의 건강관리, 신앙인의 물질생활 등 연령층에 맞는 내용으로 강의가 있거고 경로당에 나가 노인전도하기, 연예인 간증 등의 시간도 있다. 한편 특별시간에는 서예반, 찬양반, 음악반, 원예반, 신앙반으로 나뉘어 시간을 가진다. 또한 2학기에는 광릉내와 샘표간장공장을 견학하는 야외학습도 있다.

60세 이상으로 타교인이나 불신자도 입학할 수 있다.



동산공원 묘지조성

임의로 심은 나무 벌채 후원회비 납부도 바라

교회는 동산의 공원묘지를 공원화 하기 위해 따라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기존의 묘지 앞에 임의로 심어놓은 나무들을 부득이 벌채하여 잔디를 깔고 있는데, 이에 대해 성도들의 양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한다.

또한 93년도분 후원회비를 충현동산 현장에서 9월29일부터 10월1일까지 접수한다. 이날외에도 교회사무국으로 후원회비를 납부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새 각오

박 철 구

〈집사, 새가족위원회 양육부 교사〉

동족상잔 포연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팔 명이 모여 앉아 기도 제단 설립되니
사십년 지나면서 기적같이 성장했네

모세의 40년 시험 출애굽의 준비였고
예수님의 40일 기도 공생애의 준비였고
충현의 40년 역사 재도약의 준비였네

인생의 40년은 완숙의 경지이며
교회의 40년 중대한 전환기니
새롭게 태어나자 다시 한번 변화하자

지구촌을 교구삼아 선교활동 전개하고
민족을 부흥켜 안고 영혼을 구원하고
세계를 이끌고 나갈 천국 일꾼 양성하자

40년 지나면서 축적된 경험으로
미래의 충현교회 청사진을 작성하여
하나님 역사하도록 간절히 기도하자

개혁에 앞장서실 지도자를 양성하고
일심동체 하나되어 기도로써 밀어주고
새 역사 창조하는 용광로가 되어 보자

눈 앞에 다가오는 새 세기를 대비하고
갑자기 은혜주실 조국통일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로써 현명하게 대처하자

이만여 충현가족 각오를 새롭게하여
금세기가 지나기 전에 이십만을 전도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증거하자

〈충현교회 설립 40주년을 생각하며〉

베드로 남전도회

전 지회 연합 모임

9월18일(토), 양재시민공원
전도대회 및 체육대회

베드로 남전도회 협의회에서는 오는 10월17일에 있을 "예수사랑 큰잔치"를 대비한 전도대회 겸 23개 전도회 지회 활성화 및 회원배 가운데로 전도회 각 지회간 친교 및 협력구축을 목적으로 오는 9월 18일(토)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양재시민공원(우천시 교회)에서 '제1회 베드로 남전도회 체육대회'를 갖기로 했다.

이날 모임에서는체육대회(족구, 배구)와 노방전도 및 전도찬양, 전도회 월례회 등 갖가지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40세에서 50세에 이르는 충현교회 남성도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특히 신입회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회원 및 관심있는 분들은 필히 부부동반하여 참석해주시기를 바라고 있다.



제직원 사진첩 제작

촬영 12일부터 교구별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설립 마흔들을 맞으며 제직원 사진 앨범을 만들기로 하고 다음 주일부터 제직원 개인사진을 찍기로 했다. 사진은 선교관 407호에서 찍게되는데 매 주일 두 교구씩 정해진 시간에 가면 찍을수 있다. 촬영은 이승철 집사가 담당한다. 촬영 계획은 다음과 같다.

· 대 상 : 원로장로, 장로, 교역자, 원로집사, 집사, 원로권사, 권사, 명예직 권사, 남여서리집사

· 촬영교구 : 9월 12일 제1교구, 제2교구
9월 19일 제3교구, 제4교구
9월 26일 제5교구, 제6교구

· 촬영시간 : 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수요일 :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50분까지
목요일 :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금요일 :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50분까지

· 촬영장소 : 선교관 407호(충현사진방)

교회설립40주년 기념예배

오늘, IV부 예배시, 본당에서 저녁에는 가브리엘찬양대의 축하찬양예배로

교회는 오늘(9월5일) 교회설립 40주년을 맞으며 기념감사예배를 IV예배 시간인 오후 1시에 본당에서 드리게 된다. 1953년 9월 첫 주일 설립예배를 드린후 만 40년이 되는 해로 40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뜻깊은 해이다.

오늘 교회설립 40주년 기념예배는 윤용규 목사의 사회와 당회서기 오태희 장로가 기도할, 당회장 신성중 목사가 설교를, 청량교회 박명수 원로목사가 축사를, 김창인 원로목사가 축도를 하게된다.

예배시간에는 특별히 설립당시 교인 8명(3명은 미국에 거주)에 대한 기념품 증정도 있다.

당회장 신성중 목사는 교회설립40주년 기념사에서 40년의 의미와 충현 40년을 맞은 우리의 자세, 앞으로 우리가 중점을 두고 해 나가야 할 일들을 말하며 앞으로 우

리교회는 ① 섬기는 교회 ②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교회 ③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④ 북한선교에 힘쓰는 교회 ⑤모이고 흠어지는 균형있는 교회 ⑥ 기독교문화를 창달하는 교회로 발전해 갈 것을 역설했다.

한편 오늘 저녁에는 교회설립40주년을 기념하며 가브리엘찬양대(지휘 최광덕, 반주 송영미)가 연주하는 축하찬양예배로 드리게 된다.

원로목사 김창인 목사는 <주간충현> 대담에서 지나온 삶들을 돌아보며 충현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우리 충현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철두철미하게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일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원로목사·당회장 동정

- 김창인 목사님
- 6, 7일 엑스포 연합집회 인도 (대전)
- 신성중 목사님
- 6일 목회자 세미나 강의
- 10일 크로스웨이 성경연구 강의

◆ 금주에 기도할 제목 ◆

다함께 기도합시다



1.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지켜주소서.
· 김창인 목사님 : 9월 6, 7일(월, 화) 엑스포 연합집회 인도(대전)
· 신성중 목사님 : 9월 6일(월) 목회자세미나 강의, 9월 10일(금) 크로스웨이 성경연구 강의
2. 이 나라 백성이 죄를 회개하고 서로 사랑하는 백성이 되게 하소서.
3. '93 예수사랑 큰잔치를 앞에 놓고 대신자를 정하여 기도하면서 힘써 전도하게 하소서.
4. 사랑의 편지 보내기 운동에 모두 다 참여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5. 목회자 세미나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강사님들을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소서.

사랑의 편지 이렇게 활용합니다

사랑의 편지 전도법은 일상의 생활에서 가볍게 만날 수 있는 전도 대상자들의 굳게 닫혀진 마음, 또한 복음에 대하여 굳게 닫혀진 사람들에게 본인도 느낄 수 없도록 사랑을 베풀어 대상자의 마음에 복음의 문을 여는 전도법이다.

그 방법으로는 매우 아름다운 글과 그림이 들어있는 사랑의 편지를 보내어 지속적인 사랑의 접촉을 유지하는 것이 이 전도법의 생명이라고 보며, 특별히 각 대상자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는 12종류의 사랑의 편지를 전도대상자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편지를 부치는 동안에는 계속 관심을 보이며 사랑의 편지를 발송하여 대상자가 마음문을 열때 복음의 초청 잔치에 초대하는 방법이다.

사랑의 편지 활용법은 다음과 같다.

1. 사랑의 편지의 종류

- (1) 유치부 (2) 유년부 (3) 초등부 (4) 중등부 (5) 고등부 (6) 대학부
- (7) 청년부 (8) 장년부(남자) (9) 장년부(여자, 주부) (10) 소망부
- (11) 환자 (12) 교회 나오다 낙심한 자

2. 사랑의 편지 활용법

- (1) 항상 접촉점 사랑의 편지(제1신)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 대상자를 정하면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 (2) 편지를 보내는 순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본당 로비에 준비되어 있는 사랑의 편지에 전도대상자의 주소를 봉투에 기록하여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한다.
① 구역예배시 구역장에게
② 주일 교구간사에게
③ 주일 로비의 편지함에
(3) 수집된 편지는 주일 찬양예배시 당회장 목사님의 기도 후
(4) 월요일 교회에서 일괄 발송한다.
(5) 주의할 점은 편지를 보낼 때, 정성어린 몇마디의 인사말이나 혹은 내용을 기록하고 마지막 부분에는 발송일자과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6) 편지를 발송한 후 발송카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 93 예수사랑큰잔치 를 위한 모임 : 93 예수사랑큰잔치 분과위원장과 지도 목사 모임이 매주일 오후 4시에 선교관 301호에서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교회설립 40주년 기념 선교대회가 9월1 ~ 3일까지 본당 및 본당 로비, 사진 전시실에서 열렸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모든 선교사가 참석하여 현지 보고와 그동안 선교사역을 중심으로한 강의를 했고, 노른 목사가 21세기를 향한 제1세계적 세계복음화 전략에 관해서, 강승삼 목사가 교회선교의 활성화 총회 선교정책을 중심으로하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다. 한편 전시실에서는 선교사진과 선교품들이 전시되어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며 선교지에 대한 이해를 늘릴수 있었다. 사진은 리셉션과 선교대회 장면 (사진 / 이승철 집사)

